

고구려시기 성건설에 대한 연구

교수 박사 리광희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에는 대성산성과 같은 훌륭한 산성이 많았습니다. 자모산성, 황룡산성과 오녀산성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산성이 고구려땅을 조밀하게 뒤덮고있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279페이지)

고구려는 존재하는 전기간 수많은 성을 쌓아 온 나라를 성으로 뒤덮었다. 그러므로 후세의 역사가들은 고구려를 성의 나라라고 불렀다.

지난 시기 안팎의 학계들에서는 고구려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였는데 고구려성의 종류와 분포, 성방어체계 등에 대한 해명이 위주로 되였다.

고구려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성을 건설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성건설과정에 대한 연구는 성의 위치선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고구려봉건국가가 취한 조치들과 적용한 법규정내용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성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항목들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심화시키려고 한다.

2. 본론

고구려사람들은 일찍부터 성을 많이 건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과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성건설에 대한 이론을 내놓고 발전완성시켰다.

2. 1. 성의 위치와 지형선정

중세 성을 쌓는데서 제일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성의 위치와 지형을 잘 선택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위치와 지형을 어떤 곳에 정하는가에 따라 성이 정치, 경제, 군사적거점으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많이 좌우되였기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성의 위치와 지형선정을 중시하였다.

2. 1. 1. 수도성의 위치선정

고구려는 B.C.274년에 환인(졸본)에 첫 수도성으로서 졸본성을 쌓았다.

고구려가 건국초기에 수도의 위치를 어떤 곳에 정하였는가는 문헌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첫 수도의 위치를 정한 사실에 대하여 《至卒本川(至紇升骨城)

觀其土壤肥美山河險固遂欲都焉(졸본(홀승골성에 이르렀다.)에 이르렀다. 그 지방의 토지가 비옥하고 산천이 험준함을 보고 드디어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원년

이 기사는 고구려가 처음으로 도읍의 위치를 정할 때 농사짓기에 좋은 비옥한 땅과 방어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던 사실을 전한것이다.

건국초기 고구려는 수도의 위치를 우선 경제발전에 유리한 곳에 정하였다.

그것은 수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게 되며 세월이 흐를수록 인구밀집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때문이다. 수도에 집중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지방들에서 올라오는 물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마련된 생산물에 의거하여 보장하여야 하였던것만큼 고구려는 수도를 경제발전에 유리한 곳에 정하였다.

건국초기 고구려는 수도의 위치를 또한 적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유리한 군사적요충지에 정하였다.

그것은 건국을 전후한 시기 고구려가 처하여있던 형편과 관련되어있었다.

고대말 소국들사이에는 끊임없는 정복전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수도를 적의 침공을 막는데 유리한 곳에 정할것을 요구하였다.

B.C.3세기초에 구려국과 린접하여있던 고조선에서는 연나라의 침공으로 서부지역의 2000리 정도를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연나라가 장수 진개를 보내서 그 서쪽을 공격하여 2000여리를 빼앗았다.)》*

* 《삼국지》 권30 위서 한전

이것은 고구려가 건국초기부터 수도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곳에 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고구려는 A.D. 3년에 집안(국내)에 두번째 수도성인 국내성을 쌓았다.

이 시기 고구려가 수도의 위치를 어떤 곳에 정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문헌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집안에로의 천도에 대하여 《二十一年春三月郊家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拘於國內人家養之. 返見王曰<臣逐豕至國內尉那巖見其山水深險地宜五穀又多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則不唯民利之無窮又可免兵革之患也. (21년 봄 3월에 교제(하늘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왕이 장생(제사용짐승을 관리하는 벼슬) 설지를 시켜 쫓아가게 하였더니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서 돼지를 붙잡아 국내 사람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였다. 설지가 돌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암에 갔더니 그곳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토양이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일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다만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뿐만아니라 또한 전쟁걱정을 면할수 있을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22년

장생 설지는 국내 위나암이 지형상 험하다는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물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국내에 수도를 옮기면 백성들이 잘살뿐만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면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고구려가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데서 일반적으로 론하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군사적인 유리성을 우선시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수도위치선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것은 당시의 정세가 군사적인 측면을 중시할것을 요구한 결과라고 본다.

한나라침략자들은 B.C.109-B.C.108년에 고조선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일부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으며 고구려의 서쪽변방에도 기여들어 자기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결과 고구려 서쪽변방 일부 지역에 한나라침략세력이 틀고앉게 되었고 그후 100여년간 대치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당시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도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수도의 위치선정에서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환인은 구려국이라 연나부귀족들의 세력권이었고 집안은 파루부의 중심지였다. 이것은 집안으로 수도를 옮기면 왕권을 강화하는데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리라는것을 고려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5세기 초엽인 427년(장수왕 15년)에 고구려는 수도를 집안으로부터 평양(지금의 평양시 대성산일대)으로 옮기었다.

《삼국사기》에는 평양천도와 관련하여 《十五年 移都平壤(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극히 단편적인 기사만 있을뿐이다.

*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15년

5세기초 고구려의 수도위치선정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에 평양천도목적의 견지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우선 《삼국사기》에 247년 평양으로의 림시천도를 전하면서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평양이란것은 본시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의 도읍터 왕검이라고 하였다.)》라는 해석을 준 사실에 주의를 돌리고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고조선의 옛 수도에 찾아온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옛 도읍지였던 평양에 수도를 옮기면 자기가 고조선의 계승국이라는것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는데서 유리하다는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새 수도의 위치로 정하였을것이다.

또한 평양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많이 논의되었다.

대성산 주변의 고구려수도는 산줄기와 강줄기로 둘러막혀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평양이 삼국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적합한 전략적요충지였기때문에 천도하였다는 견해가 우리 학계의 정설로 인정되고있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王巡下平壤而新羅遣使白王(왕이 평양으로 내려가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말하였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400년 신라와 가야 지역에 대한 원정을 진행하는데서 평양이 거점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평양은 삼국통일을 추진하는데서 집안보다 1000리정도 가깝다.

또한 평양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국력을 보다 강화하는데서도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는데 대하여서도 논의되었다.

평양일대는 대동강과 그 지류에 의하여 형성된 충적벌, 대동강연안의 평양준평원이 있고 기후나 강수량이 농업의 발전에 알맞춤하다. 여기서는 원시시대로부터 발전된 농경 문화가 존재하였고 고대시기부터 철기문화가 발생하여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고있었다.

6세기 후반기인 550~580년대에 고구려는 지금의 평양시 중심부일대에 새로운 도성(장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옮겼다.

《삼국사기》에는 《八年築長安城(양원왕) 8년(552년) 장안성을 쌓았다.》,*¹ 《二十八年移都長安城(평원왕) 28년(586년)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²고 하였고 《수서》, 《북사》, 《신당서》 등에는 이 성의 이름에 대하여 《都於平壤城 亦曰長安城(도읍은 평양성인데 또한 장안성이라고 한다.》)*³고 기록되어있다.

*¹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양원왕 8년

*²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28년

*³ 《수서》 권81 렬전46 동이 고구려, 《북사》 권94 렬전82 고구려전, 《신당서》 권219 렬전145 고려

문헌기록들에는 왜 수도의 위치를 대성산주변으로부터 평양성(장안성)으로 옮겼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6세기 고구려의 수도위치선정원칙을 평양성(장안성)이 대성산주변의 수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하여야 한다.

평양성은 우선 대성산성주변의 수도보다 방어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평양성이 자리잡은 지역은 방어에 유리한 모란봉의 높은 고지들을 포괄하고 청류벽과 만수대언덕 뒤면의 절벽을 리용하면서 대동강과 보통강을 자연해자로 삼을수 있어 도시전체를 성으로 둘러싸는 도성을 건설하는데서 이상적인 위치였다. 그러므로 평양성은 수도방위산성과 청암동토성, 고방산성으로만 이루어진 대성산주변의 수도보다 훨씬 더 강한 방어력을 가진 요해지였다.

후세사람들도 평양성에 대하여 《북쪽은 산이 막고 다른 세면은 물이 막았다.》*¹, 《평양은 앞강과 뒤내로써 성호를 삼고있으니 이것은 실로 하늘이 만들어준것이며 땅이 마련하여준 요새이다.》*²라고 하였다.

*¹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고적

*² 《평양속지》 권1 성지

평양성은 또한 도시전체를 둘러막아 안전성이 보장된 지역에 리방제형식의 밀집된 도시를 형성하고 많은 주민들을 배치하여 수도안의 백성들을 관리하는데 편리하였다.

그러므로 평양성의 위치선정에서 군사적인 유리성과 행정관리상의 편리성이 고려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2. 1. 2. 지방성의 위치

고구려의 지방성의 위치선정에 대한 직접적인 문헌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고구려시기 지방에 건설한 성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많이 논의되었다.

우선 중요한 행정중심지들에 성들을 건설하였다.

지방의 부수도와 주, 군, 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국가기관들이 존재하였으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보루인 성이 있어야 하였다.

고구려의 지방성은 또한 나라의 중요통로들을 따라가며 배치되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시기 대부분의 성들은 나라의 중요한 통로들에 있었으며 특히 수도와 통하는 길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었다.

고구려성들이 중요한 통로들에 있는것은 외적의 침입이 주요통로들을 거쳐서 감행되었기때문이었다.

고구려사람들은 또한 강줄기와 가까운 곳에 성의 위치를 정하였다.

성가까이에 있는 강은 거대한 자연해자로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데서 유리한 요소였다.

고구려시기 지방성은 또한 적의 침략이 예견되는 곳과 전략적인 요충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성의 중요사명이 적의 침입을 물리치는것인 조건에서 앞으로 외적의 침입이 예견되거나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에는 반드시 성을 쌓아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였다.

고구려시기 지방성은 또한 산과 넓은 벌이 련결되는 위치에 쌓았다.

당시 주민들이 주로 벌판에서 생활하고있던 조건에서 그와 가까운 곳에 성을 쌓으면 유사시에 신속히 들어가 적과 싸우는데 편리하였다.

고구려시기 지방성은 또한 새로 개척하는 지역에 쌓았다.

고구려는 새로 차지한 지역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전초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성을 축조하곤 하였다.

2. 1. 3. 지형

고구려사람들은 우선 고로봉지형에 산성을 쌓았다.

고구려시기 고로봉의 지형에 산성을 쌓았고 그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많이 논의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또한 구릉성지형에 평지성을 쌓았다.

구릉성지대는 사방을 감시하는데 편리하고 주변에서 올려다보여 권력의 《위엄》을 돋구는데도 좋으며 장마철에 큰물피해도 막을수 있었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안학궁성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고구려사람들은 또한 산과 평지대가 결합된 지형에 평산성형식의 도성을 건설하였다.

평산성은 방어에 유리한 산성의 유리성과 일상생활에 적합한 평지성의 편리성을 다 같이 갖춘 형식으로서 우리 나라 중세성곽의 가장 높은 발전단계였다. 비록 고구려시기의 평산성형식이 평양성(장안성)에서 창조된 후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도성의 지형선정에서는 완성된 성이었다.

고구려수도성의 위치선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군사적유리성이 기본표징으로 되고 경제, 정치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는데 해당 시기의 정세에 따라 그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2. 2. 성건설공사기간타산

《삼국사기》와 금석문들의 축성기사에서 공사시기를 밝힌 사료는 19건이다. 이 기사들을 분석하여 당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한기에 성을 쌓았다는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지난 시기 큰 규모의 성건설이 진행된 기간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평양성(장안성)의 건설공사기간은 기본적으로 35년이며 성을 더 보강하고 뒤�처리까지 말끔히 끝낸 기간은 42년이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건설공사는 《삼국사기》에 《春二月王動衆築長城東北自扶餘城東南至海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봄 2월 왕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다. 그 성이 동북(동쪽)은 부여성에 이르고 동남(서남)으로 바다까지 1 000여리에 이르는데 무릇 16년만에 준공되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알수 있다.*

*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류왕 14년

성건설기간은 총 건설량과 한해에 어느 정도의 로력을 얼마동안 동원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총공사량과 그에 따르는 로력공수는 규정되어있으므로 실지는 한해동안에 투하되는 로력수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좌우되었다.

적은 로력을 동원하고 농한기에만 공사를 진행하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로력을 동원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를 강행하면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다.

고구려시기 한해동안에 성건설공사에 동원시키는 기일에 대하여서는 명백한 자료가 없지만 대체로는 농사형편에 따라 결정하였을것이다.

298년 10월에 고구려의 봉상왕은 궁실을 증축하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피로워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자주 말리었으나 듣지 않았다. 300년 8월에 봉상왕은 다시 나라안의 남녀 15살이상을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는데 내몰아 백성들은 먹을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부역에 시달리었다.

국상 창조리는 자연재해가 자주 닥치고 곡식은 잘되지 않아 장정들은 사방으로 류리하고 늙은이와 어린것은 죽어서 개굴창과 구렁텅이에 넘어진다고 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힘든 건설로 괴롭히는 공사를 중지할데 대하여 충고하였다. 그러나 왕이 말을 듣지 않자 정변을 일으켜 죽여버렸다.*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봉상왕

이것은 농사형편이 나쁜 때에 공사를 벌려놓는것을 극히 꺼려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해동안에 진행하는 공사일수는 농사작황과 같은 경제형편에 따라 정하였을것이다.

조선봉건왕조초기의 자료를 보면 성건설동원일수를 농사소출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상년이면 30일, 중년에는 20일, 하의 상년에는 10일, 하의 중, 하의 하년에는 동원시키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세종실록》 권112 28년 4월) 이것은 리상적인 조건에서 년에 동원시킬수 있는 기간이 30일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시기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겠지만 통치배들은 갖은 구실을 다 붙여 인민들을 고역으로 내몰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2. 3. 성의 크기와 시설결정

2. 3. 1. 성의 크기

성의 크기는 유사시에 그안에 들어갈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성을 지나치게 크게 건설하면 방어밀도가 작아져 지켜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성이 너무 크면 규모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려시기 거란의 침략이 박두하자 전쟁준비를 갖추면서 외성안에 간막이성벽을 쌓아 성의 크기를 줄인 실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성이 들어갈 인원에 비하여 작으면 사람과 물자를 수용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제기된다. 성안에는 사람이 살 집과 그들이 먹을 량곡과 물, 전투기술기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크기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고구려시기 사람의 수와 성의 크기를 어떻게 맞추었는가를 추산해볼수 있다.

개모성은 무순시 서쪽의 고성자성으로 보고있는데 둘레가 2 000m정도 된다. 여기에는 4 000명정도의 군사와 8 000명정도의 백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군사 1명당 차례지는 성벽의 길이는 0.5m이다.

백암성은 등탑현 동남쪽의 연주성으로 보고있는데 둘레가 2 500m정도이다. 여기에는 함락당시 남녀가 1만여명 있었으므로 원래 군사수와 백성의 수가 개모성보다는 더 많았다. 얼마나 더 많았는지는 잘 알수 없으나 군민 1인당 차례지는 성벽의 길이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것으로 추산된다.

백암성안의 군대수는 당시 2 400명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군사 1명당 돌아가는 성벽의 길이가 개모성보다 훨씬 길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백암성이 천험의 요새로서 적이 공격할수 있는 구간은 서남쪽의 50보(100여m)구간밖에 되지 않으므로 방어군을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하였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성의 크기에 따르는 총 군민수에서는 개모성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또 군사가 적었던 관계로 전투가 벌어지자 인차 오골성에서 1만명의 원군이 달려왔던것 같다.

또한 당시에 건안성과 신성에는 고구려군사가 10만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건안성으로 볼수 있는 개현의 고려성산성은 둘레가 5 000m이상이 되고 신성으로 보고있는 무순고이산성은 4 000m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군사 1명당 0.1m정도의 성벽이 차례졌다고 계산된다.

이것은 방어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성들은 다 해당 지역의 기둥방어성들로서 녹살이 지휘하는 큰 무력이 있었으며 일단 아래단위의 성들에서 위험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원군을 보낼 정도로 예비무력도 가지고있었을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시기 성을 설계할 때 이러한 원칙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수, 유사시에 들어갈 군민수를 고려하여 군사 1명(백성 2명 포함)당 성벽을 0.5m이하로 분담할수 있게 크기를 정하였다고 본다.

2. 3. 2. 산성안의 시설

고구려시기 수도방위산성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과 군민이 다 들어가 일정한 기간 항전을 진행하면서 나라를 움직여나가는 일종의 립시수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이 립시수도의 사명에 맞게 산성안에 기본수도에 있어야 할 시설들을 다 포함시켰다. 대성산성을 발굴한데 의하면 성안에서는 왕이 살면서 정사를 보는 행궁터, 판청터, 살림집터, 병영터, 창고터로 볼수 있는 각종 집자리, 군사지휘를 하는 장소인 장대, 많은 량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못자리 등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정은 지방의 산성들에서도 다를바가 없다.

산성안의 시설들가운데서 문헌기록에 남아있는것은 저장시설이다. 그러므로 저장시설에 대하여서는 일정하게 논의할수 있다.

《주서》에는 《治平壤城 其城東西六里 南臨浪水. 城內唯積倉 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수도는 평양성인데 그 성의 동서는 6리이며 남으로는 패수에 립했다. 성안에는 다만 로적거리와 창고가 있어 군사물자를 저축하였으며 적들이 쳐들어오는 날에는 곧 들어가 굳건히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 《주서》권49 렬전 고구려

이것은 당시의 고구려수도방위성이었던 대성산성안에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저축하여놓는 창고가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성산성을 발굴하여본데 의하면 식량을 저축하였던 창고터라고 볼수 있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건물들에는 지붕에 기와를 씌운것도 있고 초가이영을 한것도 있었다.

창고는 수도방위성뿐만아니라 다른 성들에도 갖추어져있었다.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 료동성에 량곡 50만석이 있었다.*

*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4월

그리고 645년 전쟁시 개모성에도 10만석의 량곡이 있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고구려시기 성안에 비축하게 된 량곡의 량을 추산하여볼수 있다.

료동성에는 전사한 군사 1만여명, 사로잡힌 군사 1만여명, 백성 4만명으로 총 6만여명이 있었다. 료동성의 군대와 백성의 비율은 1:2정도이다. 그러므로 1명당 평균식량저축량은 $50\text{만석} \div 6\text{만여명} = 8.3\text{석}$ 이하로 된다.

또한 개모성은 함락되었을 때 성안에 1만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군대와 백성을 합친 수자였을것이다.

이것을 놓고 원래 성안에 있던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할수 있다. 료동성의 경우를 보면 군사의 50%가 전사하면 성의 방어밀도에서 공간이 많아져서 지켜내기 힘들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개모성에서도 군사와 백성의 비가 1:2정도이고 전투과정에 50%정도의 군사가 전사하였다고 보면 성안의 군민수는 군사 4 000명, 백성 8 000명으로 총 1만 2 000명정도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모성에서 인구 1명당 식량저축량은 $10\text{만석} \div 1\text{만 } 2\text{ 000명} = 8.3\text{석}$ 이 되는데 이것은 신통히도 료동성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것은 우연한 수자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에서 산성안의 창고에 보관하였던 량곡의 량에 대한 규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성안에는 유사시 들어올 군대와 백성 1명당 8.3석의 량곡을 저축하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1명당 하루에 평균 1kg씩 소비한다고 하여도 이 량이면 3년이상 먹을수 있는데 이것은 산성안에 이만한 량곡을 비롯한 예비물자를 저축할 창고들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비적으로 고려시기 수도북쪽방어성이었던 대흥산성은 둘레가 10.1km되는 큰 성이다. 여기에는 동창, 내창, 승창 등 4개의 창고가 있었고 거기에는 약 4 244섬의 량곡이 있었다.*

* 《중경지》 권5 관방

고구려의 산성안에는 많은 물을 저장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다.

고구려-한전쟁시기에 있는 위나암성방어전투는 고구려시기 산성안의 물저장정형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당시 적들이 수십일간이나 수도방위성인 위나암성(산성자산성)을 포위공격하면서 물러가지 않자 좌보 올두지는 적군이 우리가 바위돌투성이인 산성에 들어와있으므로 물이 부족할것이라고 타산하면서 포위를 풀지 않는것 같은데 못속의 잉어를 잡아 물풀로 싸고 얼마간의 술을 보내어 위로하는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지로 그렇게 하였더니 적장은 성안에 물이 많으니 속히 함락시킬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저들이 가져온 식량도 떨어져가므로 퇴각명령을 내렸다.*

*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1년

고구려시기 성안에 얼마만한 물을 저장하였는가는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 룡동성 등 여러 성들에 있던 고구려군민들의 인원수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따져볼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4월의 기사를 가지고 계산하여 보면 룡동성에는 수비군사와 주민 도합 6만여명, 건안성과 신성에 있는 고구려군사만도 모두 10만여명(여기에 주민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인원)이 있었다.

사람에게 하루에 1L정도의 음료수가 필요된다고 가정하면 룡동성안에 있던 고구려군민들이 소비하는 음료수만 하여도 하루에 약 6만L(약 60t)에 달한다. 음료수뿐만아니라 밥짓고 세면과 세척하는 물을 비롯한 생활용수도 필요하였다. 이외에 전투에 사용되는 물까지 계산하면 그 량은 실로 수백t에 달할것이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아도 고구려시기의 산성안에서는 많은 물저장시설들이 발견되었다. 대성산성안에서 170여개의 못자리가 발견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고구려시기 산성안의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과 우물도 음료수원천이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隧山谷 以爲居 食澗水(산골짜기를 따라 살면서 골짜기물을 마신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원래부터 골짜기의 개울물을 음료수로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의 옛 고구려도시구획안에서 발굴된 고산동 고구려우물과 립흥동에서 발굴된 1, 2호 우물 등은 당시 도시주민들이 우물의 물을 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런 기술을 가진 고구려사람들이 산성안에 들어가서도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리

용하였으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골짜기의 땅겉면에 물이 말라도 지하에는 계속 물이 흐르므로 물원천이 매우 풍부하다.

2. 4. 성건설조직

2. 4. 1. 로력조성

축성공사는 매우 어려운 토목공사였던것만큼 여기에는 많은 로력이 동원되었다. 중세의 문헌기록에는 성쌓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고역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삼국시기 성을 건설하는 공사와 관련한 일부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무릇 16년만에 준공되었다.*¹

백제에서는 386년에 15살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방을 쌓았다.*²

백제에서 사구성을 쌓을 때에는 동부와 북부의 2부 백성들로 로력을 충당하였고*³ 쌓현성을 쌓을 때에는 한수 북쪽 주, 군 15살이상의 백성들을 징발하였다.*⁴

468년에는 신라에서 15살이상의 하슬라사람들을 징발하여 니하에 성을 쌓았다.*⁵

*¹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영류왕 14년

*²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진사왕 2년

*³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전지왕 13년

*⁴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무녕왕 23년

*⁵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자비왕 11년

신라에서는 722년에 돌레가 가장 큰 규모의 성인 모별군성(모화군성) 6 792보 5자를 쌓는데 3만 9 262명의 장정로력을 동원시켰다.*

* 《삼국유사》 권2 기이 효소왕

이 자료들을 통하여 우선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에 성을 쌓은 부역대상은 15살이상의 사람들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라장적잔본》에는 당시의 호구구성에서 조자와 조녀자(16-19살), 정과 정녀(20-59살)가 있는데 결국 이들이 성을 축조하는 로력대상이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기록들에 15살이상의 장정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호구수에 의한 기준이며 그밖에 토지결수에 따라서도 인원을 계산하였을것이다. 그것은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가운데 살림이 어려워 공사기간에 먹고 살수 없는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기때문이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동원로력을 뽑는데서 토지 1~2결당 1~2명, 3~4결에는 2~3명으로 정하였다.

또한 성건설에서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로력징발대상지를 한정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앞에서 본 천리장성건설공사, 수도성건설공사와 같이 규모가 매우 큰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인원을 모집하였던것 같다. 이런 공사는 규모가 매우 크므로 일정한 지역만으로는 인원을 충당하기 어려울것이였다.

평양성의 축조정형을 밝힌 평양성각자성석에는 《漢城下後部小兄文達(한성 하후부 소형 문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담당자가 지방인 한성에서 온 사람이라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가 지휘한 사람들도 한성사람들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집안에서 발견된 《十谷民造瓦所(십곡민조와소)》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막새는 고구려 시기 지금의 황해남도지역에 존재하던 십곡성의 기와제작소에서 1200리 떨어진 집안의 왕궁이나 관청건설에 필요한 기와를 보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기와를 기술자들이 부역으로 끌려가 현지에서 생산하였는지 아니면 십곡성에서 생산하여 운반하였는지는 잘 알수 없으나 해당 공사에 동원되었다는것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사는 될수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인원을 충당하였다.

백제에서 사구성을 동부와 북부의 2부 15살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쌓게 하고 쌍현성을 한수 북쪽 주, 군 백성들을 징발하여 쌓은 실례가 있다. 이 성들은 다 규모가 커서 좌평들이 말아 건설하였는데 편리상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로 쌓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력징발에서 이러한 원칙을 세운것은 부역에 나오는 거리가 너무 멀면 왕복하는데 많은 기일과 물자가 허비되어 공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웠기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고구려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시기 성건설구간분담에 대하여서도 해명할수 있다.

당시 평양성에서 나온 글자새긴 성돌을 비롯한 금석문들을 연구하여 일반적인 성벽 축조구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고구려시기 평양성을 건설하면서 한개 단위를 11~12리정도로 하였는데 《반계수록》의 자료와 대비하여보면 그것이 중세 성건축에서 표준길이단위였다.

고구려의 성들가운데는 이 표준길이보다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었으므로 실지로는 표준길이보다 다르게 분담구간조직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았을것이다.

성벽의 매 단위마다 얼마만한 로력을 붙이는가 하는것도 성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큰 성이라고 하여도 건설기간을 오래 잡으면 적은 로력을 동원하여 쌓을수도 있고 작은 성이라고 하여도 짧은 시간안에 완성하자면 거기에 맞게 로력을 많이 동원하였을것이다.

당시 성을 건설하는데 얼마만한 사람들을 배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722년 신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인 모벌군성(모화군성) 6792보 5자를 쌓는데 3만 9262명의 장정로력을 동원시켰다는것과 826년에 우잠태수 백영이 한성 북쪽 주군사람 1만명을 동원하여 300리 패강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모벌군성의 길이를 자로 환산하면 6792보 5자=4만 0752자(6792보)+5자=4만 0757자이다. 결국 성 1자를 쌓는데 배당된 사람은 1.038명이다.

17세기 산성성벽 2보(12자)구간축조에 12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30일간 결린다고 하였다.

《반계수록》에는 평지의 토성벽축조에 1자당 47공수가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벌군성은 중세에 산성벽 1자당 사람 1명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기초하여 리상적인 조건에서 농민들을 동원시킬수 있는 기간인 30일간에 공사를 끝내려고 타산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패강장성은 300리(300×360×6=64만 8000자)에 1만명이 동원되었으므로 1인당 64.8자에 해당한다.

이것은 인원수를 적게 하고 오랜 기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쌓는데 16년, 고려의 천리장성은 13년이 걸린것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성축조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도 하고 인원이 없으면 1인당 많은 구간을 배당하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2. 4. 2. 로력지휘체계

성을 건설하는 공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군사요새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였고 중세 토목공사들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으므로 그것을 맡아서 수행하는 로력지휘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었다.

삼국시기의 문헌기록을 보면 성의 건설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었다.

백제에서도 왕이 동부와 북부의 2부 15살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게 하고 병관 좌평 해구를 시켜 감독케 하였다는 기록과 왕이 한성으로 가서 좌평 인우와 달솔 사오 등에 명령하여 나이 15살이상 되는 한수 북쪽의 주, 군 백성들을 징발하여 쌓현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들은 천리장성과 사구성, 쌓현성건설이 왕의 명령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축성공사책임자는 성의 규모와 동원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임명하였다고 본다.

큰 규모의 성건설은 많은 로력이 동원되므로 그들을 움직일수 있는 권한을 가진 높은 급의 관리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을것이다.

천리장성건설을 지휘한 연개소문은 서부대인으로서 녹살급의 인물이다.

녹살급의 인물이 움직일수 있는 인원수는 645년 전쟁시기 북부녹살 고연수와 남부녹살 고혜진이 거느린 고구려원군 15만명중 고구려군사가 10여만명이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15만명의 원군중에 고구려군수와 말갈군수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하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는 《자치통감》에 있다. 적의 유인전술에 걸려 패전한 후 고연수, 고혜진에게 남은 군사는 모두 3만 6 800명이였는데 그중 말갈군사는 3 300명정도였다. (《자치통감》 권 198 당기) 이것은 남은 군사중에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비율이 10:1정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만약 처음 15만명의 원군중에 있던 고구려군사와 말갈군사사이의 비례도 이 정도였다면 고구려군수는 13만 6 360명, 말갈군수는 1만 3 640명정도로 추산할수 있다. 그러나 실지에는 말갈군사들의 전투력이 고구려군보다 훨씬 약하였으므로 전투과정에 흩어지거나 죽은 수가 고구려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을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반침략군사행동에 동원되는 말갈군수는 적지 않았는데 실례로 598년 고구려왕은 1만명의 말갈군사를 거느리고 수나라의 영주를 공격하였다.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제8 영양왕 9년)

그러므로 645년 고구려가 편성한 원군중에도 말갈군사가 수만명정도는 되었을것이며 고구려군사는 10만~13만명정도로 추산할수 있다. 고구려의 통수부가 총책임자격인 북부녹살 고연수외에도 남부녹살 고혜진을 따라 보낸것은 10여만명의 고구려군을 1명의 녹살이 맡을수 없었기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당시 5부의 녹살이 거느릴수 있는 인원은 5만여명정도였다고 볼수 있게 한다. 이 전쟁에서 다른 자료를 보아도 건안과 신성의 고구려군이 10만명이라고 하였는데 이 성들은 다 녹살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큰 주급의 성들이

다. 그러므로 녹살들이 거느릴수 있는 인원을 5만여명정도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천리장성건설에서는 당시 당나라의 침략이 박두한 조건에서 10여년동안 해오던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전국에서 5만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에 맞는 지휘관으로 연개소문을 임명하였다고 보인다.

룡오리산성안의 바위에 새긴 글자에 의하면 축성공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부 소대사자 어구루이다. 룡오리산성의 둘레는 2 020m인데 이것은 당시에 크지 않은 규모였다.

여기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룡오리산성건설을 책임진 어구루가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긴 구간의 성벽축조를 담당한 평양성의 약모리, 배수백두, 문달, 가군 등보다 벼슬등급이 높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룡오리산성의 둘레는 평양성건설에서 구간책임자가 담당한 11~12리에 비하면 훨씬 짧다. 이러한 모순은 아마도 공사에 동원하게 된 로력수의 차이에 비결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룡오리산성을 담당하여 쌓은 소대사자라는 벼슬등급은 종4품이고 평양성의 일정한 구간을 책임진 소형은 정7품이다.

고구려에는 벼슬등급에 따라 거느릴수 있는 인원의 수가 규정되어있었다. 《한원》 고려기에 의하면 미약(말객, 중랑장급)은 1 000명을 거느릴수 있었다. 소형은 정7품인데 북부 소형 고노자의 경우와 같이 작은 성(현급의 성)의 책임자인 재(중랑장급)로 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형인 재는 1 000명정도까지 거느릴수 있었다.

《한원》 고려기에는 고구려의 무관제에서 미약우에 대모달(위장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북사》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백제에서 《방에는 10군이 있고 군에는 장수가 세사람 있어 덕술로 임명하니 군대 1 100명이하 700명이상을 통솔한다.》고 기록되어있다.*

* 《삼국사기》 권40 잡지 무관

이 장수가 거느린 군사의 수가 1 100명이하인것으로 보아 중랑장급이었다고 본다.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장수들이 거느리는 군사수에서도 서로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위장군은 미약보다 3배 많은 수(700~1 100명의 3배이면 2 000~3 000명정도)를 거느렸을것이다.

유주자사 진의 묘지명을 보면 그는 건위장군, 국소대형, 좌장군, 룡양장군, 료동태수, 유주자사의 순서로 승진하였다.

이것은 대형이면 장군급이고 태수도 좌장군, 룡양장군직을 지닌 사람들이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정5품인 국소대형보다 더 높은 품계이며 태수급(신성태수 북부대형 고노자)보다도 높은 종4품 소대사자 어구루는 좌장군보다 높은 룡양장군급이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거느릴수 있는 인원은 적어도 제일 낮은 장군이 거느릴수 있는 2 000~3 000명의 4배정도에 달하였을것이다.

826년에 신라의 우잠태수 백영이 한성 북쪽 주군사람 1만명을 동원하여 300리 패강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태수급이 거느릴수 있는 인원이 1만명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구루가 거느린 인원은 1만명정도로 추산할수 있다.

룡오리산성의 둘레 2 020m를 고구려자로 환산하면 5 800자정도 되는데 이것은 1인당 0.58자씩이다. 그러므로 룡오리산성은 어구루가 장마철이 끝나고 아직 가을걷이가 시작되기 전인 농한기 8월에 성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추석까지 완공할수 있게 1만명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공사진행에 가장 적합한 기간안에 성건설공사를 완공할수 있는 1만명정도의 인원을 인솔할수 있는 관리인 소대사자 어구루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고 볼수 있다.

축성공사책임자는 수도의 관리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로력자를 내는 지방의 관리들도 임명하였다고 본다.

평양성건설을 주관한 관리들가운데서 3명의 소형과 1명의 상위사자는 출신을 밝히지 않았고 1명의 소형만이 한성 하후부라고 출신지를 밝혔다. 이것은 한성에서 올라온 소형을 제외한 나머지소형들과 상위사자가 중앙의 관리라고 볼수 있게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궁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을 잘못된 관리 수십명의 불기를 쳤으며 각 도에서 올라와 축성공사를 감독하던 고을원들을 올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성건설감독이 기본적으로 중앙의 관리들이였고 해당 고을의 관리들도 올라와서 감독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성건설공사는 구간을 몇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책임자를 임명하여 추진하였다.

평양성에서 발견된 성돌에 새긴 글자에 의하면 축성공사의 담당자는 소형 상부 약모리, 물성소형 배수백두, 내중백두상위사자, 한성 하후부의 소형인 문달, 파루개절 소형 가군들이다.

평양성건설에서 일정한 구간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보면 대체로 정6품~정7품까지에 해당하는 관리들이었다.

고구려의 벼슬등급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 근간에 나온 도서 《고구려사제문제》의 표를 참작하면 제일 높은 벼슬은 기축년 3월 21일부터 12리 구간을 담당한 내중백두상위사자인데 등급상으로는 정6품이다. 그다음의 소형들은 정7품에 해당한다. 이들이 맡은 구간은 11~12리인데 이것은 도성과 같이 큰 성에서나 있을수 있는것이였다.

성건설에서는 총책임자, 구간별책임자와 함께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감독통제성원들을 배치하였을수 있다. 그것은 1명의 책임자만으로는 긴 구간의 공사추진과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때문이라고 본다.

신라의 남산신성비문 8개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이 성을 쌓을 때 10~15명 집단이 하나의 조가 되어 대체로 수십보구간(3번째 구간은 21보 1치—126자 1치)을 맡아서 성을 쌓았는데 그러한 집단이 200개이상 되었다고 한다. 그중의 한 구간의 책임자는 달부마을의 주도리라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평양성은 장기간 쌓았으므로 공사인원을 그렇게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형이 책임자로 될수 있는 작은 성(현성)의 무력수와 비슷한 인원(증랑장급이 거느릴수 있는 1 000명정도)을 데리고 11~12리 구간을 쌓았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2. 5. 자금과 기자재확보

2. 5. 1. 자금

성을 건설하는 공사는 많은 자금이 드는 어려운 일이었다. 수십만³m에 달하는 돌을 캐서 가공하여 쌓는 공사에 얼마만한 자금이 들었는지를 정확히 밝힐만 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통하여 자금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명할수 있다.

우선 도성과 같이 중앙의 큰 규모의 성건설공사는 국가에서 부담하였다고 볼수 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고구려중 도림의 권고를 받아들인 백제 개로왕이 나라사람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궁실, 루각, 정각들을 수리하였는데 이로 하여 국가창고들이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하여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을 건설하는 공사에 국가의 자금이 탕진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또한 비교적 작은 성들은 자체내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쌓았다고도 볼수 있다.

고려시기의 일이지만 평안북도 념변군 념변읍에 있는 철웅성비에는 《(철웅성을 새로 쌓고) 돌을 다듬어 사실을 기록하여 장차 오래도록 전하려고 하는데 재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한탄을 하니 절도사 류비연이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절도사급이면 자기 관할하에 있는 성을 축조하는데 자금을 보장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시기에도 주, 군, 현의 각급 성을 건설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지방에서도 일정한 몫을 맡아 보았으리라고 본다.

2. 5. 2. 자재

성돌의 재료로는 화강석이 제일 좋았다. 그것은 화강석이 다른 돌들보다 굳고 결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공할수 있고 풍화되여도 격지가 일어나지 않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서북부일대에서 알려진 수많은 산성들에서 성문을 비롯한 중요시설들에는 화강석을 많이 리용하였다.

돌을 마련하는 채석장은 성건설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하는것이 합리적이였다. 그것은 채석장이 먼곳에 있으면 그 채취와 운반이 매우 어려웠기때문이었다. 집안일대에서 발견된 고구려시기의 채석장은 당시 성을 비롯한 건축물축조에 리용되던 석재의 채취가 큰 규모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평양의 대성산성 성벽을 쌓은 돌들을 보면 100%가 대성산주변에 흔한 사암이다. 이것은 당시 성건설에 필요한 돌을 보장하면서 멀리에 가지 않고 주변에서 해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평양성(장안성)을 건설할 때에는 고구려의 국력이 보다 강화되여 많은 부분을 화강석으로 축조하였다. 당시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는 화강석이 없어 멀리 온천지역에서 사람들이 한줄로 늘어서서 운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백제의 개로왕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개건하기 위하여 옥리하에 가서 큰돌을 채취하여 가져왔다는 기록도 당시 성건설용석재보장의 어려움을 생동한 사실로 증명하여

준다.

《取大石於郁里河作槨以葬父骨(옥리하에서 큰돌을 캐서 껍을 만들어 아버지의 유골을 장사지냈다.)》*

*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2. 5. 3. 운반수단

석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의 운반은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를 리용하였다고 본다. 고구려에는 소나 말과 같은 짐짐승이 많았고 수레와 관련한 벽화자료와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런 수레들은 석재운반에도 적극 리용되었을것이다.

고려시기인 1010년에 건립된 경상북도 레천군 《개심사석탑기》를 보면 이 돌탑을 쌓는데 광군 46대(1대는 25명이므로 46대는 1 150명이다.)가 수레 18량, 소 1 000마리와 함께 동원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시기 석탑건설공사는 돌을 채취하여 다듬고 운반하여 축조하는 고구려의 돌성건설공사와 류사한 공정이며 다만 그 규모가 훨씬 작았을뿐이다.

고려시기 경효(공민)왕릉을 건설하면서 그 운반에 끌려나왔던 소들이 수많이 죽어 길가에 늘어졌다는 기록은 성건설에 리용된 운반수단을 알수 있게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10년 사간원이 평양성중축공사에 대하여 상소한 내용을 보면 《그곳(황해도)의 장정일군들은 각각 소와 말을 가지고 평양에 돌을 실어가고있으며 로약자들과 부녀자들이 논밭에서 곡식을 걷어들여서는 그것을 동원된 사람들의 식량으로 운반하고있습니다.》라고 기록되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돌아온 황도는 《성을 쌓는 군정들은 3~4일길이나 되는데서 돌을 캐오므로 소와 말은 피곤하였으며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돌을 운반하느라고 길에 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 《태종실록》 경인 10월

이러한 사정은 고구려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2. 6. 축성법규정

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어김없이 동원하고 전기간 강한 규률을 세워 공사의 질을 엄격히 보장하자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감독통제하는 법규정이 있어야 하였다.

고구려시기에는 성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전국각지에 수많은 성을 쌓았던것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정연하게 서있었을것이다.

경주의 남산신성에서는 성건설과 관련한 비석이 8개 발견되었는데 그중 3번째 비에 《신해년(591년) 2월 26일 남산신성을 쌓을 때 법의 요구대로 쌓았다. 만약 3년이내에 붕괴되는 경우 공사담당자(축조구간책임자)가 죄를 받을것을 맹세한다. 달부마을의 주도리가 맡아서 쌓은것은 21보 1치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비문을 잘 분석하여보면 여러가지 사실을 밝혀낼수 있다.

우선 6세기 신라에 성건설과 관련한 법규정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남산신성을 쌓을 때 법의 요구대로 쌓았다면 그 이전에 벌써 성문화된 법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조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성벽의 일정한 길이를 단위로 하여 축조구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감독통제하는 담당자들을 두었으며 3년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를 받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매 구간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지킬것을 맹세하게 하며 매 구간책임자의 이름과 출신지, 구간의 길이를 둘에 새겨 밝혀놓게 되었다.

신라는 4~5세기경부터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많은 성들을 고구려식의 고로봉식산성으로 개조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신라의 성건설규정이 고구려의 영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성축조와 보수관리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었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것은 룡오리산성석각이나 평양성석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도 성을 쌓은 다음에는 거기에 담당구간과 담당자를 기록해놓은 실례가 있기때문이다.

룡오리산성은 그 위치로 볼 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남쪽으로부터 침략하여오는 적들로부터 수도 국내성을 보위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이미 1세기경에 벌써 고구려에는 성을 쌓는것과 관련한 엄격한 법이 실행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3. 결 론

전국초기부터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면서 천년을 강성한 고구려의 력사에서 성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크다.

고구려에서는 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성건설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발전완성시켜 온 나라를 성의 나라로 만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고구려시기 성건설과 관련한 연구는 이제 시작을 뻔데 불과하다.

성건설과 관련한 규정세칙들은 비록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것이 많지만 고구려의 성건설을 연구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고구려가 수많은 성들을 건설하면서 제정하여놓은 규정세칙들을 연구하는것은 곧 고구려의 발전된 성곽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으로 된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자료와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연구를 심화시키면 고구려시기 성의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보다 깊이 해명할수 있을것이다.

실마리어 고구려, 성곽, 건설